

百濟滅亡戰爭과 金欽純

徐榮教*

- I. 머리말
- II. 金欽純과 黃山伐 決戰
- III. 金欽의 古泗 전투와 周留城 위치
- IV. 內斯只城 勝戰과 병참선 확보
- V. 居列城 전투와 百濟南海岸 4州 燒燔
- VI. 맺음말

국문초록

660년 7월 18일 羅唐연합군이 泗沘城을 함락시켰다. 하지만 9월 3일 蘇定方이 10만 군대와 함께 철수하자 백제부흥운동이 일어났다. 661년에 들어서 唐軍 1천이 전멸했고, 古泗에서 신라군이 패배했다. 그곳은 倭의 병력과 군수물자가 하역되는 항구와 요새들이 위치했다. 『資治通鑑』(661년 3월 조)과 「답설인귀서」(661년 2월)를 비교하면 古泗‘지역’(平倭縣;古阜)에 周留城이 위치했음을 알 수 있다.

한편 신라와 웅진도독부 사이의 병참선은 단절과 개통이 수차례 반복되었다. 662년 7월 劉仁軌와 金欽純이 마지막으로 보급로를 개통시켰다. 이때 김흠순은 19명의 장군을 거느린 신라군의 수장이었다. 『資治通

* 中源大學校 韓國語教育文化學科 副教授 / syk367@naver.com

鑑』(661년 3월 조)에서 金欽(純)을 신라 대표 장군으로 기록한 것도 이러한 맥락에서 보아야 한다.

김흠순은 전투를 통해 신라의 陸路보급의 위험성과 倭의 水路보급의 효율성을 인식했다. 시간이 가면서 古泗에 하역되는 倭의 병력과 물자가 늘어났고, 663년 3월에 2만 7천의 倭軍이 九州를 출발하여 白村江으로 향할 터였다.

같은 해 2월에 김흠순과 天存은 소백산맥 너머에 병력과 軍資를 투입해야 했고, 전라도로 향하는 첫 관문인 居列城(거창)을 함락시켰다. 그 싸움은 白村江戰의 서막이었다. 이어 두 장군은 함께 진군하여 함양분지→운봉고원을 거쳐서 居勿城(남원)을 함락시킨 뒤, 그곳에서 천존은 全州를 거쳐 북상하여 德安城(논산)을 점령했고, 김흠순은 남하하여 沙平城(순천)을 함락시켰다. 김흠순의 군대는 西進하며 倭船의 중간기항지들이 산재한 全南해안의 도서지역(百濟南畔四州)을 조직적으로 放火했다.

김흠순의 火攻으로 倭船의 진군이 지체되었다. 663년 3월 九州를 출발한 倭軍 2만 7천 가운데 8월 13일 白村江에 도착한 것은 1만 뿐이었다.

그날 신라기병의 방해로 倭軍은 상륙에 실패했고, 周留城과 연결하지 못했다. 이는 치명적인 결과를 낳았다. 8월 17일 신라군이 周留城을 포위했고, 9월 7일 함락되었다. 白村江에서 唐艦隊가 倭船 400척을 全燒한지 10일 후였다. 김흠순의 百濟南畔 4州 방화가 白村江戰의 승패를 좌우하는 단초였다.

◆ 주제어

金欽純, 盤屈, 黃山伐, 古泗, 周留城, 居列城, 百濟南畔四州, 白村江

I. 머리말

660년 7월 羅唐聯合軍이 백제를 멸망시켰다. 하지만 福信과 道琛이 백제의 부흥을 위한 군대를 일으켰다. 복신은 의자왕의 아들 夫餘豐을 倭에서 모셔와 왕으로 옹립하여 백제를 부흥시켰고, 3년 이상의 전쟁이 지속되었다.

지금까지 백제부흥전쟁에 관한 적지 않은 연구가 있었다.¹⁾ 그 가운데 대표적인 두 연구를 소개하면 다음과 같다.

노중국은 부흥백제국을 당당한 국가적 실체로 인정하고 이를 중심축으로 자료를 해석하여 부흥운동에 대한 이해를 체계화 시켰다. 백제인들이 부여풍을 왕으로 옹립하기 이전까지 羅唐점령군과 벌인 전투는 백제를 부흥시키기 위한 전투이며, 옹립한 이후부터는 故土回復戰爭이라 했다. 또한 부흥군의 군사조직과 병력동원 방법은 그 장군들이 백제시대의 군사조직이나 지방통치조직이 가지고 있던 군사적 기능을 최대한 활용하였을 가능성을 발견했다. 마지막으로, 부흥운동이 종료된 이후 여전히 잠재되어 있던 백제유민들의 백제에 대한 의식이 어떻게 표출되었는가를 정리하였다. 전체적으로 볼 때 백제의 시각에서 바라본 부흥운동이 어떠했는지 추구하였다.²⁾

이보다 앞서 김영관은 백제부흥운동의 전모를 보다 체계적으로 파악하려 하였다. 백제부흥운동이 왜 일어나게 되었는가 하는 문제에서 시작하여 어떠한 사람들이 그것을 주도하였고, 어디에서 일어났으며, 어떤 방식으로 전개되었는지 등의 기초적인 문제들을 엄밀하게 고증했다. 마

1) 著書만 소개하면 다음과 같다.

노중국, 『백제부흥운동사』 일조각, 2003, 12.

공주대학교 백제문화연구소 편, 『백제부흥운동사 연구』 서경, 2004.

金榮官, 『百濟復興運動 研究』 서경, 2005.

충남역사문화연구원 편, 『백제의 멸망과 부흥운동』 백제문화사대계 연구총서 2007.

양중국, 『의자왕과 백제부흥운동 옛보기』 서경, 2008.

이재준, 『백제멸망과 부흥전쟁사』 경인, 2017.

2) 노중국 앞의 책.

지막으로 백제부흥운동이 성공하지 못한 이유와 그 역사적인 의미, 주변 국가의 반응 등을 종합적으로 다루었다.³⁾

두 연구자에 의해 백제의 시각에서 조명된 부흥운동사의 체계가 세워졌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본 연구는 신라의 시각에서 그것을 바라보려 한다. 그것도 병참선을 두고 벌어진 백제멸망전쟁의 양상과 작전변화를 중심으로 하고자 한다.

이때 신라장군 金欽純이 주목된다. 그는 역사에 우뚝 선 兄 金庾信에게 가려왔다. 하지만 백제멸망전쟁 당시 唐은 그가 고령인 형을 대신하여 신라 군부를 실질적으로 이끌었다고 간주하고 있었던 것 같다.⁴⁾ 그를 중심으로 백제멸망전쟁을⁵⁾ 재성찰하면 새로운 면이 부각될 것으로 판단된다.

이러한 착안에 입각하여 먼저 黃山伐에서 아들을 죽음으로 내몰았던 아버지 김흠순에 대해 다루었다. 다음으로 661년 3월 신라의 古泗 지역의 공략 목적이 무엇이고, 周留城의 위치가 어디인지 살펴보았다. 그 다음으로 김흠순이 신라와 熊津都督府 사이의 병참선을 확보하기 위해 참전한 內斯只城 싸움에 대해 고찰해 보았다. 마지막으로 663년 2월 居列城 전투와 그 의미를 다시 생각해보고, 김흠순의 百濟南畔 4州지역 방화가 倭船團에게 준 타격에 대한 필자의 기존 설을 보완해보았다.

II. 金欽純과 黃山伐 決戰

660년(태종무열왕 7년) 정월 上大等 金剛이 사망하고 김유신이 그 자리에 임명되었다.⁶⁾ 가야계인 김유신이 권력의 정점에 오른 것이다. 그해

3) 金榮官, 「百濟復興運動研究」 단국대 박사논문, 2003, 8.

4) 여기에 대해서는 본문 3장에서 다루었다.

5) 金昌鐔의 지적을 따라 백제멸망전쟁이라 했다(신라사학회 학술대회 2019, 12, 21).

6) 『三國史記』 권5, 태종무열왕 7년(660) “春正月, 上大等金剛卒. 拜伊瀾金庾信爲上大等.”

7월 김흠순은兄과 함께 5만의 대군을 이끌고 黃山伐로 향했다. 『三國史記』 신라본기는 이렇게 기록하고 있다.

“7월 9일 庾信 등이 黃山原을 향해 진군하니 백제 장군 階伯이 군사를 거느리고 와서 먼저 험한 곳을 차지하여(先據嶮) 세 군데의 진영을 설치하고 기다리고 있었다.”⁷⁾

의자왕은 達率 階伯을 불러 병력 5천명을 주고 黃山에 가서 신라군을 막도록 했다. 계백이 먼저 험한 곳에 3개의 진영을 설치했다. 그곳은 신라군이 반드시 지나가야 하는 협곡이었다. 백제가 5천의 병력으로 그 10배인 신라군을 상대하기 위해서는 병목지점이 아니면 불가능하다.⁸⁾

신라군이 錦江에 상륙한 唐軍과 연결하기로 한 7월 10일까지 하루 밖에 남지 않은 때였다. 妻子를 죽이고 나온 階伯 장군의 비장함에서 그날 살아서 돌아갈 수 있다고 생각한 백제병사들은 많지 않았을 것이다.⁹⁾

신라군은 죽음의 결의를 다진 階伯의 5천과 4번 싸워 모두 패하였다. 신라가 병력이 10배나 많았지만 병목구간이라 투사할 수 있는 전력이 제한되었다. 다음날 蘇定方の 군대와 연결하기로 했는데 차질이 불가피해질 터였다. 난관을 타개하기 위해 가장 먼저 나선 사람이 김흠순이었다.

그는 아들 盤屈을 불러 말했다. “이때 목숨을 바치면 忠孝를 한 번에 하는 것이다.” 절박한 시점에 그 누구도 상상할 수 없는 명령을 내렸다. 아들은 두말 하지 않고 적진에 뛰어들었고 싸우다가 죽었다.

반굴은 孝의 진정한 의미를 알고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그의 집안은 가야계라서 차별을 받다가 이제 권력의 정점에 올랐다. 다시 내려갈 수 없었다. 김유신의 조카가 희생되자 정통 진골인 品日도 움직였다. 자신

7) 『三國史記』 권5, 태종무열왕 7년(660) “七月九日, 庾信等, 進軍於黃山之原, 百濟將軍 階伯, 擁兵而至, 先據嶮, 設三營以待. 庾信等, 分軍爲三道, 四戰不利, 士卒力竭.”

8) 서정석은 황산벌 전투 장소를 천호산과 계룡산 사이의 협곡 이라 했다.

서정석, 「百濟山城을 통해본 황산벌전투의 현장」 『歷史教育』 91, 2004, 151쪽.

9) 『三國史記』 권47, 階伯傳 “…以一國之人, 當唐羅之大兵, 國之存亡, 未可知也. 恐吾妻孥, 沒爲奴婢, 與其生辱, 不如死快. 遂盡殺之.…”

의 아들 官昌을 출전시켰다. 그도 병사들이 바라보는 앞에서 싸우다 산화했다.

두 장군이 아들을 죽음으로 떠미는 장면을 본 신라 병졸들은 희생을 기꺼이 받아드리게 되었던 것으로 보인다. 신라군이 백제군 진영으로 달려들었고, 계백의 5천 결사대를 단숨에 물리쳤다. 황산벌 전투는 삼국시대에 대를 물려가며 전쟁을 치러야했던 긴 세월 가운데 하루에 불과하다. 하지만 그것은 사회지도층의 희생과 그러한 상관을 추종하며 따르는 병사들의 전형을 보여주고 있다.

아들을 戰場의 祭物로 바친 김흠순 그는 어떤 인격의 소유자인가? 기록을 보면 그는 진평왕 때 郎徒의 우두머리 花郎이었다고 한다. 인덕이 있고 신의가 두터워 인심을 크게 얻었다. 673년 宰相이던 형 김유신이 사망하자 그 자리를 이었던 것 같다. 국왕에게 충성하고, 인자한 자세로 백성들을 대하였으며, 나라 사람들이 모두 그를 어진 宰相이라 했다고 한다.

자신과 자식에게는 가혹했지만 타인에게는 관대한 사람이었다. 그의 손자 김영윤도 아버지 반굴처럼 685년 보덕성민 반란 진압 때 전사했다. 金富軾은 김흠순의 아들과 손자의 戰死를 이렇게 치켜세웠다. “명문세가의 출신답게 명예와 절개를 지켰다.”¹⁰⁾

672년 김유신은 아들 원술이 석문전투에서 도주하여 生還한 것을 몹시도 부끄러워했다. 그는 甥姪인 문무왕을 찾아가 처벌을 간청하기까지 했다. 이제까지 자신이 死地로 몰아넣었던 수많은 신라의 병사들에게 면목이 서지 않았던 것이다.

아들을 死地로 몰아넣는 장군의 심리란 무엇인가. 아들이 戰死하면 자신의 명령을 따르다 죽어간 수많은 병사들에게 품었던 마음의 짐이 어느 정도 들어진다고 한다. 부하들에게 영이 서게 되고 필요할 때 거침없이 명령을 내려도 따른다. 의도했건 그렇지 않았건 결과적으로 장군들은 자식의 戰死로 권위를 가진다.

10) 『三國史記』 권47, 김영운전 “…至黃山之原, 值百濟將軍階伯戰, 不利. 欽春召子盤屈曰: 爲臣莫若忠, 爲子莫若孝, 見危致命, 忠孝兩全.” 盤屈曰: “唯.” 乃入賊陣, 力戰死. 令胤生長世家, 以名節自許.”

III. 金欽의 古泗城 전투와 周留城 位置

660년 7월 18일 泗沘城이 羅唐연합군에 의해 함락되고 義慈王과 그 가족들이 체포되면서 백제가 멸망했다. 그러나 9월 3일 蘇定方이 10만 군대와 함께 본국으로 철수하자 백제 전국에서 부흥운동이 일어났다.

해를 넘겨 661년에 이르자 부흥군의 기세는 더욱 커져갔다. 熊津府城의 문을 나와 금강 동쪽에서 싸우던 唐軍 1천명이 전멸을 당했고, 周留城을 포위했던 신라군도 패배를 당했다.¹¹⁾

道琛은 自稱하여 領軍將軍이라 하고, 福信도 자칭하여 霜岑將軍이라 하면서 무리들을 불러 모으니, 其勢가 더욱 많아졌다. 仁軌의 병력이 적어 仁願의 병력과 合軍하여 士卒들을 쉬게 하였다.

황제가 新羅에 出兵의 조서를 내렸다. 新羅王 春秋가 詔를 받들어 그 장수 金欽을 파견하여 將兵을 거느리고 仁軌 등을 구원하게 하였다. (김흠의 신라군이) 古泗에 이르자 福信이 공격을 하여 패배시켰다. (金)欽은 葛嶺道를 통해 新羅로 도주했고, 감히 다시는 오지 못하였다. 福信이 道琛을 죽이고 그 나라의 군사를 오로지 다스렸다.¹²⁾

古泗城 싸움에 참전한 신라장군 金欽 그는 누구이며, 그의 작전 목표는 무엇인가? 661년 봄 작전에 대해서는 『三國史記』에 상세한 기록이 있다.

8년(661) 봄 2월, 백제의 잔적이 사비성을 공격하였다. 왕은 이찬 品日을 大幢 장군으로 임명하고, 連浪 文王과 大阿浪 양도와 阿浪 중상 등으로 하여금 그를 돕게 하였다. 또한 連浪 문충을 上州 장군으로 임명하고, 阿浪 진왕으로 하여금 그를 돕게 하였으며, 阿浪 의복을 下州 장군, 무휼·옥천 등을 南川 大監, 문품을 誓幢 장군, 의광을 郎幢 장군으로 임명하여 사비성을 구원하게 하였다. 3월 5일, 중도에 이르자 品日이 자기 군사의 일부를 나누어 豆良尹[‘윤’을 ‘伊’라고도 한다]城 남쪽에 먼저 가서 진지를 만들 곳을 살펴보도록 하였다. 백제 사람들은 우리 진영이 정

11) 『三國史記』 권7, 문무왕 11년 조 답설인귀서

12) 『資治通鑑』 卷200, 唐高宗 龍朔 元年(661) 3月 丙申朔 조

리되지 않은 것을 보고, 갑자기 예상하지 못한 급습을 해왔다. 우리 군사들이 놀라 패주하였다. (3월) 12일, 대군이 古泗比城 밖에 와서 진을 치고 있다가 豆良尹城을 공격하였으나, 한 달 엿새가 되도록 승리하지 못하였다. 여름 4월 19일에 군사를 철수하면서 大幢과 誓幢을 먼저 보내고, 下州의 군사를 뒤 따라 오게 하였다. 그들이 賓骨壤에 이르렀을 때, 백제 군사를 만나 싸웠으나 패배하였다. 사망자는 비록 적었으나 병기와 군수품을 상당히 많이 잃었다. 上州와 郎幢은 각산에서 적을 만나 공격하여 승리하고, 마침내 백제의 진중으로 들어가 2천 명을 참살하였다. 왕은 군사가 패배했다는 소식을 듣고 크게 놀라서 장군 金純(김흠순), 진흠, 천존, 죽지, 제사를 보내 구원하게 하였다. 그들이 加尸兮津에 도착했을 때, (大幢 등이) 加召川까지 퇴각하였다는 소식을 듣고 되돌아 왔다. 왕이 여러 장수들의 패전 책임을 물어 정도에 따라 벌을 주었다.¹³⁾

661년 2월에 大幢・誓幢・下州・郎幢・南川州 군단이 백제지역에 투입되었다. 3월 5일 大幢은 백제부흥군의 급습을 받아 패주하였고, 古沙比城(古泗城) 밖에 진을 치고 두량윤성을 포위해서 공격하였음에도 실패하였다. 이에 따라 도주와 같은 철수가 시작되었다. 도중에 빈골양(정읍)에서 부흥군과 마주쳐 동쪽으로 패주하였다.

신라 본영에서 원군이 꾸려졌다. 金純, 진흠, 천존, 죽지, 제사를 보내 구원하게 하였다. 4월 19일 낙동강을 건너 고령 加尸兮津에 도착한 金純 등은 大幢 등이 加召川¹⁴⁾에 이르렀다는 소식을 듣고 돌아갔다.

『資治通鑑』(661년 3월 조)에 金欽으로 나오는 사람은 『三國史記』 661년 4월 조의 金純과 동일인물이 아닐까. 『三國史記』 권42, 김유신전의 다음 기록은 해답을 준다.

“용삭 원년(661) 봄(春)에 왕은 백제의 잔적이 아직 남아있으니 그대로 둘 수 없다고 하여 이찬 品日·소관 문왕·대야찬 양도 등을 장군으로 삼아 백제로 가서 그들을 치게 하였으나 승리하지 못하였다. 이에 따라 이찬 欽純[欽春으로도 쓴다].

13) 『三國史記』 권5, 태종무열왕 8년(661) 2월-4월 조.

14) 거창 남하에 加川과 黃江의 합류지점을 ‘加召川’이라 지표로 붙였던 것 같다. 왜냐하면 가조분지 내부로 들어가면 고립된 형국이기 때문이다. 현재 합류지점에서 고령-대구까지 이어지는 국도가 달리고 있다.

진흙천존과 소관 죽지 등을 보내 우리 군사를 구원하게 하였다.”¹⁵⁾

이 기록은 앞서 언급한 『三國史記』 신라본기 661년 2월-4월조의 압축판이다. 661년 봄 백제지역에서 品日 등의 공략이 실패하자 김흠순이 구원군으로 출동한 사실이 확인된다. 신라본기의 金純은 金欽純이 확실하다.

『資治通鑑』(661년 3월 조)과 같은 사실을 전하고 있는 『三國史記』(신라본기 661년 2월-4월)기록은 차이가 있다. 전자는 金欽이 지휘하는 신라군이 古泗城(전북 고부)에서 패배하여 葛嶺道를 통해 도주했다고 하고 있고, 후자는 品日등이 이끄는 신라군이 패배하자 김흠순 등이 이를 구원하기 위해 출동했다고 하고 있다. 필자는 여러 가지를 고려할 때 후자가 더 정확한 사실을 전하고 있다고 생각한다.

하지만 660년 7월 蘇定方의 泗沘都城 점령에서 661년 3월 古泗지역 전투까지의 사실을 전하는 『資治通鑑』(661년 3월 조)의 기록은 唐의 宰相으로서 監修國史였던 劉仁軌의 백제종군일지를 저본으로 했을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그것에 담긴 의미까지 무시할 수 없다. 당시 唐의 시각에서는 金欽(純)이 신라 군부를 실질적으로 이끄는 장군으로 여겨졌던 것이다.

661년 봄에 신라군이 백제의 中方인 古泗城(고부) 부근에서 작전을 수행했던 목적은 무엇일까. 노중국은 복신과 도침이 처음 군대를 일으켰을 때 그 중심지는 任存城이었으나 그 후 중심지를 周留城으로 옮겼다고 한다. 그 이동시기는 661년 3월 이전이라고 보았다.¹⁶⁾

福信 등 백제부흥군 중심세력의 古泗지역으로의 南下는 무엇을 의미하는가. 이와 관련하여 김병남의 지적이 주목된다. “『新增東國輿地勝覽』 古阜郡 山川 항목에 大浦는 군의 서쪽 10리에 있다. 訥堤川의 하류가

15) 『三國史記』 권42, 김유신전 “龍朔元年(661)春, 王謂百濟餘燼尚在, 不可不滅, 以伊瀋品日·蘇判文·王大阿浪良圖等, 爲將軍, 往伐之, 不克. 又遣伊瀋欽純[一作欽春]·眞欽·天存·蘇判竹旨等, 濟師.

16) 노중국, 『백제부흥운동사』 일조각, 2003, 124-125쪽.

되는데 조수가 드나든다[大浦(在郡西十里 訥堤川下流 潮水往來)]. … 남쪽(古泗:필자)지역은 임존성보다는 당장 지원을 받을 수 있는 倭國과 지리적으로 가까울 뿐 아니라 교섭에도 유리한 고사성이나 공주·부여로 들어가는 해상로의 길목이며 …부흥운동의 총본영이 되지 않았을까 한다.…”¹⁷⁾

661년 신라군의 古泗(고부)지역 작전의 목표는 倭의 병력과 군수물자가 하역되는 항구와 그 거점을 점령하기 위한 것으로 보인다. 그곳은 부흥군에게 생명줄과 같은 것이고, 신라는 그것을 끊어야 했다. 그 흔적이 『三國史記』 권37, 地理 古四州 5縣 조에 남아 있다.

古四州는 본래 古沙夫里였다. 5縣이 있는데 平倭縣, 본래 古沙夫村이다. …¹⁸⁾

663년 9월에 周留城이 함락되고 倭軍이 한반도에서 완전히 일소된 직후 翁진도독부는 백제지역을 7州로 편제하였는데 그것이 『三國史記』 지리지에 남은 것 같다. 그 가운데 하나가 古泗州이다. 그런데 翁진도독부가 古泗의 州治인 古沙夫里村을 平倭縣으로 고쳤다. 倭軍을 平定한 곳이라는 뜻이다. 이곳에서 나당연합군과 백제·倭軍 사이에 결정적인 전투가 벌어졌고, 唐의 翁진도독부가 이를 기념하기 위해 이름을 그렇게 고쳤다.¹⁹⁾

翁진도독부 예하의 수없이 많은 縣 가운데 古沙夫村을 平倭縣이라고 한 것은 그곳이 倭의 軍資와 兵力이 집결한 지역이었다는 의미이기도 하다. 같은 사건을 전하는 것으로 보이는 아래의 두 자료를 비교해보자. 周留城의 위치를 밝히는 중요한 사안이라 원문으로 제시했다.

17) 김병남, 「정읍 고부의 지역적 형성과 변화 과정」, 『全北史學』 31, 2007, 23쪽.
김병남, 「백제 부흥 전쟁기 고사비성 전투의 의미」 『정신문화연구』 35권 1호, 2012, 288쪽.

18) 『三國史記』 권37, 地理 “古四州, 本古沙夫里, 五縣: 平倭縣, 本古沙夫村…”

19) 전영래 『고사부리』 정읍군, 1980, 7쪽.

이도학, 『백제장군 흑치상지 평전』 주류성, 1999, 136쪽.

김병남, 「정읍 고부의 지역적 형성과 변화 과정」, 『全北史學』 31, 2007, 30쪽.

『資治通鑑』卷200, 唐高宗 龍朔 元年(661) 3月 丙申朔(1일) “…初, 蘇定方即平百濟, 留郎將劉仁願鎮守百濟府城, 又以左衛中郎將王文度爲熊津都督, 撫其餘眾. 文度濟海而卒, 百濟僧道琛·故將福信聚眾據周留城, 迎故王子豐於倭國而立之, 引兵圍仁願於府城. 詔起劉仁軌檢校帶方州刺史, 將王文度之眾, 便道發新羅兵以救仁願. 仁軌喜曰: “天將富貴此翁矣!” 於州司請《唐曆》及廟諱以行, 曰: “吾欲掃平東夷, 頒大唐正朔於海表!” 仁軌禦軍嚴整, 轉門而前, 所向皆下. 百濟立兩柵於熊津江口, 仁軌與新羅兵合擊, 破之, 殺溺死者萬餘人. 道琛等乃釋府城之圍, 退保任存城; 新羅糧盡, 引還. 道琛自稱領軍將軍, 福信自稱霜岑將軍, 招集徒眾, 其勢益張. 仁軌眾少, 與仁願合軍, 休息士卒. 上表詔新羅出兵. 新羅王春秋奉詔, 遣其將金欽將兵救仁軌等, 至古泗, 福信邀擊, 敗之. 欽自葛嶺道遁還新羅, 不敢復出, 福信尋殺道琛, 專總國兵.”

『三國史記』 권7, 文武王 11년 答薛仁貴書 “至(顯慶)六年, 福信徒黨漸多, 侵取江東之地, 熊津漢兵一千, 往打賊徒, 被賊摧破, 一人不歸. 自敗已來, 熊津請兵, 日夕相繼. 新羅多有疫病, 不可徵發兵馬, 苦請難違, 遂發兵衆, 往圍周留城. 賊知兵小, 遂即來打, 大損兵馬, 失利而歸.”

먼저 『資治通鑑』 龍朔 元年(661) 3월 1일 조 기록을 『三國史記』 권5, 태종무열왕 7년(660)-8년(661) 조와 시간별로 대조하면 다음과 같다. ‘初’로 시작하여 蘇定方이 백제를 멸망시킨 660년 7월로 시간을 거슬러 올라간다. 그리고 唐에서 파견된 웅진도독 王文度の 사망(660년 9월 28일), 직후 그를 대신해 劉仁軌가 백제에 파병되는 상황, 현지에 도착한 劉仁軌가 신라군과 연합하여 부흥군 소탕 작전수행과 신라군의 철수(660년 10월 18일-11월 22일), 이후 다시 어려워지자 唐이 신라에 구원을 재차 요청하여 金欽이 인솔하는 군대의 古泗 지역 파병이 이루어졌다(至(顯慶)六年[661년 1-2월]). 하지만 신라군이 참패하여 661년 3월 1일에 철수하고,²⁰⁾ 동시에 승리한 福信이 道琛을 제거한 사실을 전

20) 『三國史記』 권5, 태종무열왕 8년(661) 조는 신라군 철수 시점을 4월 19일로 기록하고 있다.

『資治通鑑』 661년 3월 1일 조 바로 뒤에 이어지는 기록의 시점은 같은 해 夏4月 3일(丁卯)이다.

하고 있다. 권중달은 도침의 피살을 3월 1일 직후로 보고 있다.²¹⁾

『三國史記』 답설인귀서에 보이는 至(顯慶) 6년은 661년 正月에서 2월 그믐 乙未日 하루 전까지를 말한다.²²⁾ 이때에 신라군이 출동하여 周留城을 포위했다가 패배했다고 한다. 熊津都督府의 請兵과 신라군 도착 시간을 계산하면,²³⁾ 661년 3월 초하루(1일)에 古泗지역 전투에서 신라군의 패전과 철수를 전하는 『資治通鑑』의 시점과 거의 일치한다.²⁴⁾ 古泗城이 아니라 古泗로 기록하고 있는 『資治通鑑』을 참고 한다면, 周留城은 平倭縣(古泗) 지역 관내의 성들 가운데 하나였던 것으로 보인다.²⁵⁾

IV. 內斯只城 勝戰과 병참선 확보

이후 661년 6월 웅진도독부가 또 위기에 처한 기록이 보인다.

(661년) 6월에 이르러 선왕(태종무열왕)이 돌아가시자 장례를 겨우 끝냈는데, 상복도 미처 벗지 못한 상황이었으므로 군사를 웅진으로 보내지 못하였던 바, 皇帝가 칙서를 내려 군사를 북방으로 보내라고 하였다. 그 때, 含資道總管 劉德敏 등

21) 권중달 譯 『자치통감』 21, 삼화 2009, 378쪽 8째줄.

22) 『資治通鑑』 卷200, 唐高宗 龍朔 元年(661) 2月 “乙未 그믐(晦)에 (龍朔으로) 改元.”

23) 언급한 바와 같이 熊津府城 唐軍의 거듭된 청병을 받고 신라군이 재출병한 시기는 661년 2월이다.

24) 『三國史記』 권5, 태종무열왕 8년(661) 3월 조를 보면 이 작전에서 신라군의 첫 패배를 3월 5일로 전한다. “三月五日, 至中路, 品日分麾下軍, 先行往豆良尹[一作伊.]城南, 相營地. 百濟人望陣不整, 猝出急擊不意, 我軍驚駭潰北.” 唐의 宰相이자 監修國史 劉仁軌의 中軍기록을 저본으로 하여 작성된 것으로 보이는 『資治通鑑』 (661년 3월 1일 조)은 첫 패배가 결정적인 것으로 간주하고 있다.

25) 『三國史記』 권5, 태종무열왕 8년(661) 3월 12일 조에 신라군이 古沙城 외곽에 주둔한 것으로 나와 있다. “十二日, 大軍來屯古沙比城外, 進攻豆良尹城.” 서정석은 古泗城을 周留城으로 보았다. 서정석 「백제 白江의 위치」 『白山學報』 69, 2004, 222쪽. 김영관은 豆良尹城을 周留城으로 보았다. 金榮官, 「百濟復興運動의 成勢와 唐軍의 對應」 『韓國古代史研究』 35, 2004, 165쪽. 노중국은 周留城을 古泗(고부)가 아닌 부안의 위금암산성으로 보았다. 노중국, 『백제 부흥운동사』 일조각, 2003, 196쪽.

이 왔는데, 그들은 신라로 하여금 평양으로 군량을 운반하게 하라는 황제의 칙명을 전하였다. 이 때 웅진에서 사람을 보내와 부성(사비성)이 고립되어 위태롭다는 사정을 자세히 전하였다. 劉總管이 나와 함께 일을 처리하면서 스스로 “만약 먼저 평양으로 군량을 보낸다면, 웅진 길이 차단될 것이오, 웅진길이 차단된다면 그곳에 주둔하고 있는 唐 나라 군사가 바로 적의 손아귀에 들어 갈 것이 걱정된다.”라고 말했다. 이에 따라 劉總管은 드디어 나와 동행하여 우선 웅산성을 공격하였다. 웅산을 점령하고 이어 웅진에 성을 쌓고, 웅진길을 개통시켰다.²⁶⁾

위의 사료에 따르면 백제부흥군이 신라에서 웅진도독부로 향하는 보급로를 막았고, 그것을 뚫기 위해 羅唐軍이 협력하여 다시 개통시켰다. 이러한 과정에서 고구려로 가야할 신라군이 묶이게 되었다.

(661년) 8월 前將軍 大華下 阿曇比羅夫連, 小華下 河邊百枝臣 등, 後將軍 大華下 阿倍引田比羅夫臣, 大山上 物部連熊, 大山上 守君大石 등을 보내 百濟를 구원하게 했다. 거둬(仍) 兵杖과 五穀을 보냈다. <或本에는 이 끝부분에 전하기를 別使 大山下 狹井連檣榔, 小山下 秦造田來津守로 하여금 百濟를 지키게 했다고 했다.> ²⁷⁾

(662년 正月 27일) 百濟佐平鬼室福信에게 화살 10萬 隻, 絲 5百斤, 綿 1千斤, 布 1千端, 韋 1千張, 稻種 3千斛을 주었다. (662년 3월 4일) 百濟王에게 布 3百端을 주었다.²⁸⁾

661년 8월 天智天皇은 前將軍 阿曇比羅夫連 등을 百濟에 파견하였고, 거둬하여(仍) 무기와 식량을 보냈다고 하고 있다(仍送兵杖五穀). 662년 正月 27일에도 倭國은 福信에게 막대한 軍資를 원조했고, 3월에 豐璋에게 布 3백단을 증여했다.

26) 『三國史記』 권7, 文武王 11년 답설인귀서

27) 『日本書紀』 권27, 天智天皇即位前記齊明天皇 7年(661) 8월 조

28) 『日本書紀』 卷27, 天智天皇 元年(662) 正月 丁巳(27일) “賜百濟佐平鬼室福信失十萬隻. 絲五百斤. 綿一千斤. 布一千端. 韋一千張. 稻種三千斛. 3月 癸巳《4일》 賜百濟王布三百端.”

(662년 5월) 大將軍 大錦中 阿曇比羅夫連 등이船師 170艘을 이끌고, 豐璋 등을 백제에 보내주었다. 勅을 선포하여 豐璋 등으로 하여금 其位를 잊게 하고 또 福信에게 金策을 주어 격려하며 爵祿을 상으로 준다고 하였다. 이때에 豐璋 등이 福信과 더불어 머리를 조아리고 칙명을 받으니 사람들이 눈물을 흘렸다.²⁹⁾

662년 5월 阿曇比羅夫連 등이 船師 170艘을 이끌고, 豐璋을 백제에 데려다주었다고 한다. 하지만 豐璋은 이미 백제에 입국해 있었다. 662년 5월 병력과 군수물자를 선적한 170척의 倭國 함선이 백제에 도착하였고, 현지의 豐璋을 백제왕으로 冊立하고 福信에게 爵祿을 주었던 것으로 보인다.

앞서 仁願·仁軌 등이 熊津城에 주둔하고 있는데 황제가 그들에게 敕書를 보냈다. (우리 唐나라) 군대가 平壤에서 철수하였는데(662년 2월), (백제에서) 1개 城(熊津府城) 홀로 굳게 지킬 수 없으니(不可獨固), 의당 철수하여 新羅로 가야할 것이요. 만일 (신라왕) 金法敏이 卿이 남아 지키기를 원한다면 그곳에 머물고, 그렇지 않다면 바다에 배를 띄워서 (唐으로) 돌아오시오.³⁰⁾

이때 百濟王 豐과 福信 등은 仁願 등이 고립된 성에서 援助(보급)를 받는 일이 없자(孤城無援) 사신을 파견하여 말했다. “大使 등은 언제 서쪽으로 돌아가시오? 재상을 파견하여 전송하리다.”³¹⁾

662년 2월 이후 府城만 제외하고 백제 전지역이 부흥군의 손아귀에 들어갔고, 신라에서 웅진부성에 이르는 병참선이 또 다시 단절된 상태였다고 한다. 唐高宗은 劉仁軌 등에게 敕書를 보내 웅진은 고립되어 지킬 수 없으니(不可獨固) 철수하라고 했다. 황제가 보기에다 절망적이었다.³²⁾ 이때 豐璋·福信은 唐軍을 조롱하기까지 했다.

29) 『日本書紀』 卷27, 天智天皇 元年(662) 5月 조

30) 『資治通鑑』 卷200, 唐高宗 龍朔 2年(662) 7月 조

31) 『資治通鑑』 卷200, 唐高宗 龍朔 2年(662) 7月 조

32) 서영교, 「唐高宗 百濟撤兵 敕書의 背景」 『東國史學』 57, 2014, 327-352쪽.

願・仁軌가(부흥군이) 무방비인 것을 알고, 갑자기 출격하여, 支羅城 尹城・大山柵・沙井柵 등을 뽑아내니(함락시키니), 죽이거나 포로잡은 부흥군의 수가 많았다. (함락한 요새들은) 병력을 나누어 지키게 했다. 福信 등은 真峴城이 險要 하므로 군사를 증원하여 그곳을 지키게 했다. 仁軌는 그들이 조금 풀어진 틈을 엿 보다가 新羅의 군사를 이끌어서 밤중에 성 아래 가까이 가게하고 풀을 밟고 올라 가서 밤을 때쫓에 그 성으로 들어가서 점거하여 드디어 신라의 양식 운반로를 열 었다.³³⁾

그런데 662년 7월 劉仁軌 등이 반격을 했다. 웅진도독부에서 대전방 면으로 군대를 보내 그 연변에 위치한 支羅城 尹城・大山柵과 대전시 사정동의 沙井柵도 함락시켰다. 이어 真峴城도 함락시켜 신라에서 웅진 부성으로 가는 보급로를 뚫었다. 『資治通鑑』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다. “7월 30일 熊津都督 劉仁願과 帶方州 刺史 劉仁軌가 백제를 웅진의 동 쪽에서 크게 깨뜨리고 진현성을 뽑았다.”³⁴⁾ 이 전투에 김흠순이 참전한 것 같다.

(662년) 8월, 백제의 잔적이 內斯只城에 모여 반란을 도모하자 欽純 등 19명의 장군을 보내 이들을 토벌하였다.³⁵⁾

『新增東國輿地勝覽』 公州 조에 “유성현은 州에서 동쪽으로 50리에 위치해 있으며, 본래 백제의 奴斯只縣이다.”³⁶⁾라고 하고 있다. 內와 奴는 같은 음의異표기이다. 이를 감안하면 唐나라군은 부여에서 대전으로 향 하고 신라군은 옥천에서 대전으로 가서 양자가 儒城에서 연결되어 진현 성과 內斯只城을 함락시켰다고 할 수도 있겠다.

위의 『삼국사기』 기록에서 알 수 있는 것은 662년 김흠순이 19명의 장군을 거느린 신라군의 수장으로 웅진도독부의 병참선 확보전투에 참

33) 『資治通鑑』 卷200, 唐高宗 龍朔 2年(662) 7月 초

34) 『資治通鑑』 卷200, 唐高宗 龍朔 2年(662) 7月 30일 초

35) 『三國史記』 권6, 文武王 2년(662) 8월 초

36) 『新增東國輿地勝覽』 卷17, 公州 조 “儒城縣 在州東五十四里 本百濟奴斯只縣 斯一作 嘎 云云,”

전했다는 점이다. 언급한 『資治通鑑』 661년 3월 조 에서 金欽(純)을 신라 대표 장군으로 기록한 것은 이러한 맥락에서 보아야 할 것으로 생각된다.

그동안 전투를 통해 김흠순은 웅진도독부로의 陸路보급이 얼마나 비효율적이고 위험한지 절감했을 것이고, 동시에 水路를 통한 倭의 보급이 얼마나 효율적인지 느꼈을 것이다.

웅진도독부로의 糧道차단은 계속 재발되었다. 660년 9월 사비성(熊津都督府)이 포위당하자 11월에 신라군이 와서 풀어주었다. 하지만 661년 3월 신라군이 古泗에 패배하여 또 다시 막히기 시작했고, 661년 9월 신라군이 웅산성에서 부흥군을 격파하면서 다시 개통되었다. 그러나 661년 12월 웅진도독부로 식량수송을 갔던 신라인들이 한 사람도 살아 돌아오지 못했다고 한다. 662년 2월 唐高宗은 웅진도독부의 철군을 권유했는데, 唐將 劉仁軌는 포위가 되어 城 밖을 나갈 수도 없다고 했다. 이 후 같은 해 7월에 劉仁軌는 김흠순 등 신라장군들과 합동작전으로 다시 병참선을 회복했던 것이다.³⁷⁾

시간이 가면서 백제로 오는 倭의 병력과 물자가 늘어나고 있었다. 『日本書紀』는 다음과 같이 기록하고 있다.

그해(662) 百濟를 구하기 위해 兵甲을 수리하고 船舶을 갖추었으며, 軍糧을 비축하였다.³⁸⁾

倭國은 백제에 대량보급을 하면서도 동시에 兵器를 손보고, 전함을 건조하며, 군량을 비축하고 있었다. 현재 静岡県 中部 大井川 東쪽의 駿河國에서 전함들도 건조되고 있었다.³⁹⁾ 663년 3월 2만 7천의 倭軍과 大量의 軍資를 선적한 大艦隊가 九州를 출발하여 白村江으로 향할 터였다.⁴⁰⁾

37) 金榮官, 「百濟復興運動의 成勢와 唐軍의 對應」 『韓國古代史研究』 35, 2004, 180-184쪽.

38) 『日本書紀』 卷27, 天智天皇 元年(662)是歲 조

39) 『日本書紀』 卷26, 齊明天皇 6年(660) 是歲 조

40) 『日本書紀』 卷27, 天智天皇 2年(663) 3月 조 “遣前將軍上毛野君稚子。間人連大

V. 居列城 전투와 百濟南海岸 4州 燒燔

2만 7천 규모의 대군을 해외에 파병하기 위해 倭國은 2년 동안 국력을 총동원했다고 할 수 있다. 바다 건너에 있는 신라가 감지할 수 있는 규모와 시간이다. 663년이 되자 김흠순과 天存이 군대를 꾸렸다. 소백산맥 너머에 대규모 병력과 軍資를 투입해야 했다. 대전 쪽이 아니라 그보다 남쪽인 居列城(거창)을 공략했다는 것 자체가 이 작전이 의미하는 바와 관련이 있다고 생각한다.

백제인들이 점령하고 있던 居列城은⁴¹⁾ 전라도로 가는 첫 관문이었다. 그곳을 돌파하면 마리 소분지가 나오고 그곳에서 좀 더 가면 안의 소분지에 도착한다. 거기서 더 가면 함양읍 분지에 이른다. 그곳에서 완만한 운봉고원으로 올라갈 수 있다. 팔령치(운봉)는 백두대간이 남쪽으로 뻗어내려 오다가 지리산 운봉 부근에서 갑자기 주저앉은 분지이다. 이곳을 지나면 전북 남원에 이르고, 여기서 北上하면 전주-논산이고, 南下하면 순천방면으로 갈 수 있다.

居列城 옆에는 마리면에서 거창읍 분지 방향으로 흐르는 감입곡류 渭川이 있다. 그곳을 건계정 협곡이라 한다.

居列城에 주둔한 병력은 농성이 아니라 이 병목 지점을 사수하는 것이 주요 임무였을 것으로 보인다. 居列城은 계곡에서 전투를 수행하는 병사들을 지원하는 근거지인 것이다. 싸우다 지치면 그곳에 올라가 쉬고 먹을 수 있으며 이미 휴식을 마친 병력이 내려와 또 싸우는 베이스캠프 역할을 했던 것으로 보인다.


아무리 많은 적이 몰려온다고 해도 좁고 긴 통로를 형성하고 있는 협곡을 돌파하는 것은 쉽지 않다. 공격하는 측이 숫자가 많다고 해도 공간

盖。中將軍巨勢神前臣譯語。三輪君根麻呂。後將軍阿倍引田臣比羅夫。大宅臣鎌柄。率二萬七千人打新羅。”

41) 박승현은 661년 초 백제지역에서 패주한 신라군을 추격하던 백제부흥군이 居列城을 차지했다고 보았다. 박성현, 「신라의 가야 지역에 대한 축성-거창 거열산성을 중심으로-」 『居列城』 거창군 학술대회 2019.

이 좁아 투입할 수 있는 병력에 한계가 있다. 반대로 방어하는 측은 일렬로 가늘게 진입할 수밖에 없는 적을 손쉽게 상대할 수 있다. 소수의 병력이 大軍을 막을 수 있는 장소이다.

김흠순은 병력손실이 예상되는 이 협곡에서 첫 전투를 치르는 것을 주저했을 것으로 여겨진다. 보다 쉬운 방법이 있기 때문이다. 백제인들이 점령하고 있던 居列城은 지형 상 약점이 있었다. 산성이 위치한 건흥산 정상에서 거창읍 쪽으로 바라보면 완만하다.



도면 1. 거창 거창읍 위치도(위상지도:1:25,000)

(표 - 1) 전남 동부지역의 백제山城 일람표

번호	산성 이름	소재지	면적(m)	재료	축성법	형식	둘레(m)	너비(m)
1	銅丹山城	순천시 해룡면 성산리	138.4	石	夾礮式	태외식	430	5.0~5.1
2	城碧山城	순천시 황전면 죽내리	195.0	石	夾礮式	태외식	350	5.0 내외
3	鰲鳳山城	순천시 대곡동	245	石	夾礮式	태외식	490	5.0 내외
4	馬老山城	광양시 광양읍 용강리	208.9	石	夾礮式	태외식	550	5.5 내외
5	佛碧山城	광양시 진상면 비평리	231.5	石	夾礮式	태외식	500	5.3~6.0
6	鼓樂山城	여주시 문수동·미평동	200.9	石	夾礮式	태외식	354	5.1~5.3
7	尺山城	여주시 오림동	100	石	夾礮式	태외식	264	6.3 내외
8	仙蓬洲山城	여주시 신원동	135.4	土石	?	태외식	?	?
9	禿峙城	고흥군 포두면 봉림리	200	石	夾礮式	태외식	500	3.7~5.7

10	南陽聖山城	고흥군 남양면 남양리	150	石	夾礮式	태외식	530	5.3 내외
11	梧峙城	고흥군 도화면 신호리	207.6	石	夾礮式	태외식	444	4.0 내외
12	鳳城山城	구례군 구례읍 봉서리	165	?	?	태외식	?	?
13	舍米山城	구례군 산동면 신학리	218	石	夾礮式	태외식	370	5.0 내외

박성현, 「신라의 가야 지역에 대한 축성-거창 거열산성을 중심으로-」 『居列城』 (2019 거창군 학술대회) 2019년 11월)에 대한 서영교 토론문

崔仁善 「全南東部地域 百濟山城 研究」 『文化史學』 18, 2000.

태고 홍수 때부터 건흥산의 여러 개천들이 거창읍 방향으로 자갈·모래를 운반하다가 평지를 만나 퇴적이 반복되었다. 하천바닥은 점차 상승하여 유로가 불안정해지고 홍수 때마다 방향을 바꾸어 보다 낮은 곳을 흐르면서 그곳에 새롭게 자갈·모래가 퇴적된다. 유로 변천의 반복으로 가

지리 산156-2번지 일대에 선상지가 형성되었다.

김흠순 군대의 일부는 견계정 계곡을 지키는 백제의 병력을 견제하여 묶어 놓고, 주력은 접근이 용이한 가지리 쪽에서 거열산성을 공격했을 것으로 보인다.⁴²⁾ 『三國史記』 문무왕 3년(663) 2월 조를 보자.

(663년) 2월, 김흠순과 天存이 군사를 거느리고 백제의 居列城을 공격하여 빼앗고, 700명의 머리를 베었다. 또한 居勿城(남원)과 沙平城(순천)을 쳐서 항복케 하였으며, 德安城(논산)을 쳐서 1,070명의 머리를 베었다.⁴³⁾

663년 2월에 김흠순은 天存과 함께 백제인들이 지키는 居列城을 공격하여 함락시키고 700명을 사살했다. 김흠순의 居列城 陷落은 白村江 싸움의 開幕戰이었다.

이어 김흠순과 천존은 진군하여 마리→안의분지→함양분지→운봉고원을 거쳐서 居勿城(남원)을 함락시키고, 그곳에서 천존은 북상하여 德安城(논산)을 점령했다. 김흠순은 남하하여 沙平城(순천)을 함락시켰다.⁴⁴⁾ 당시 순천은 麗水·光陽·突山을 포괄하고 있는 광역의 개념이며,倭에서 백제로 향하는 선박들의 중요 기항지들(津路要害之地)이 존재했던 곳이다.⁴⁵⁾

전남 동부지역에서 현재 확인된 백제산성이 13개나 있다. 그 가운데 연안의 산성들은 축조될 때 수로교통의 편리함과 시계의 양호함을 가장 우선시 했다.⁴⁶⁾ 주변을 한눈에 볼 수 있는 곳에서 조망하다가 적이 나

42) 이재명 경남발전연구원 전문연구원의 구두지적(居列城 거창군 학술대회 2019, 11).

43) 『三國史記』 권6, 문무왕 3년(663) 2월 조 “二月, 欽純·天存領兵, 攻取百濟居列城, 斬首七百餘級. 又攻居勿城·沙平城降之, 又攻德安城, 斬首一千七十級.”

44) 서영교, 「白江戰鬪와 新羅」 『歷史學報』 226, 2015.

단 『三國史記』 권36, 지리3 혜성군 조에 領縣 3개 가운데 하나인 新杼縣 조에 “本百濟沙平縣.”이라는 기록이 보인다(金昌鏞의 지적 2019, 12, 21 신라사학회).

45) 필자는 남원에서 천존이 德安城(논산 은진)으로 갔고, 김흠순은 사평성(순천)으로 향했다고 논증한 바 있다(서영교, 앞의 논문 2015). 또한 百濟南畔 4州的 위치와 그 지역에 산재한 津路要害之地의 존재에 대해서도 밝혔고, 百濟南畔四州 放火 작전에 대해서도 언급했다(앞의 글). 이하는 앞서 언급한 자료를 새롭게 해석하고, 새로운 자료로 보강했다.

46) 崔仁善 「全南東部地域 百濟山城 研究」 『文化史學』 18, 2000, 10쪽 참조.

타나면 요격했을 것이다.

『成宗實錄』 권197, 성종 17년(1486) 11월 22일 조에 보이는 慶尙道觀察使 孫舜孝의 언급은 후대의 일이지만 對馬島 發 倭船의 남해안 연안 항로와 중간기항지에 위치한 산성의 역할에 관한 중요한 정보를 주고 있다.

신이 곤양·사천·고성에 이르러 濟州에서 와서 사는 頭無岳 등 남녀를 불러 모아 술을 먹이고 國令을 유시하며, 또 水路를 자세히 물으니, 각각 소견을 아뢰는데, 못 사람의 말이 하나같았습니다. 對馬島에서 南海(島) 彌助項까지 그 사이에 크고 작은 섬이 벌여져 있어 서로 연하였는데, 卵島·內每彌島·外每彌島·於里加件島·內非山島·外非山島·非眞島·龍草島·吾土里島·延臺島·內夫知島·外夫知島·蓮花島·牛島·赤火里島·內草里島·外草里島·林島·羅邑多只島·欲知島·馬島·內葛里島·外葛里島·大勞大島·小勞大島·內巨次里島·外巨次里島·范彌島를 지나 남해 彌助項에 이르고, 서쪽으로는 內里 突山까지 30여 리이며, 동쪽으로 삼천진까지 15여 리인데, 倭賊이 드나드는 것이 항상 이 길을 경유하면서 풍파가 일면 언덕에 의지하고, 바람이 고요하면 출발하고 이렇게 돌고 돌아 미조항에 이르면 洞 안에는 바람이 없고 해 산물이 많이 있으므로, 머물면서 물을 길은 뒤에 서쪽으로 內禮 突山에 들어가 있다가 때를 타고 몰래 나타나는데, 이 관문을 지나지 아니하면 전라도 경계에 쉽게 들어가지 못한다고 합니다. 그러니 그것은 참으로 도적의 평탄한 길이고 窟穴이므로, 그 길을 막고 그 굴혈을 빼앗으면 저들이 반드시 싫어하여 해롭게 할 것은 필연적인 형세입니다. 미조항과 삼천진 두 곳에 要害를 설치하는 것은 진실로 소홀히 할 수 없습니다. 큰 鎭을 설치하고 그 정보를 높게 쌓아서, 크고 작은 兵船을 두고 멀고 가까운 煙臺를 세워, 용맹한 군사로 지키고 郎將으로 거느리게 하며, 烽燧를 삼가고 斥候를 멀리 하여, 적이 육지에 올라와서 노략질하면 陸軍으로 치게 하고 배로 돌아가 도망치면 船卒로 추격하게 하여, 물과 육지에서 함께 견제하여 목을 누르고 등을 두드리면, 島夷가 위엄을 두려워하여 자취를 거둘 것이며, ...⁴⁷⁾

孫舜孝가 항해에 익숙한 현지인 頭無岳 등에게 對馬島 倭人의 항로를 물으니 이렇게 대답했다. 對馬島에서 南海島 미조항까지 사이에 난 도·내매미도·외매미도·어리가건도·내비산도·외비산도·비진도·용초도·오사리도·연대도·내부지도·외부지도·연화도·우도·적화리도·내초리도·외초리도·

47) 『成宗實錄』 권197, 성종 17년(1486) 11월 22일 조

임도·나읍다지도·육지도·마도·내갈리도·외갈리도·대로대도·소로대도·내거차리도·외거차리도·둔미도 등 크고 작은 섬이 떨어져 서로 연하여 있다. 對馬島에서 그 섬들을 따라가면 南海島 미조항에 이른다고 한다.

倭人들은 이 다도해를 지나가면서 풍파가 일면 섬에 배를 대고 언덕에 의지하고, 바람이 고요하면 출발하였다. 또한 이렇게 돌고 돌아 해산물이 풍부하며 고요한 미조항에 들어가 일정 기간 머물면서 식료를 자급하고 물(水)을 길은 뒤에, 서쪽으로 항해하여 30리를 가면 여수 內里와 突山島사이의 해협을 지나 전라도 해안으로 들어갔다고 한다.

때문에 倭賊이 반드시 경유하는 남해도 미조항과 사천 삼천진에 큰 城壁을 쌓고, 兵船을 두고 봉수대를 세워 적이 육지에 올라와서 노략질하면 陸軍으로 치게 하고 배로 돌아가 도망치면 船卒로 추격하게 하면 된다고 하고 있다.

여기서 백제 남해안 중간기항지의 배후에 위치한 산성들의 기능이 드러난다. 고대의 배들은 규모가 작아 중간기항지들을 경유해야했다. 산성에 주둔한 백제부흥군은 조선시대와는 반대로 倭國의 보급함대를 위해 중간기항지를 유지·관리하고, 정박한 선원들에게 식량과 식수를 제공하여 그들의 항해를 도왔던 것으로 보인다.

언급한 『三國史記』 문무왕 3년(663) 2월 조와 정확히 대칭되는 『日本書紀』 卷27, 天智天皇 2年(663) 春2月 2日 조를 보자.⁴⁸⁾

신라가 百濟南畔 4州(전라도 남해안)를 불태웠다[燒燔]. 또한(并) 安德(논산) 등 要地를 취했다.⁴⁹⁾

663년 2월에 신라가 백제 남해안(南畔 4州)의 광범위한 지역에 대규모의 放火를 했다고 한다. 김흥순은 백제 남해연안의 성들을 하나씩 함락시키는 것은 너무 많은 희생이 따르고 시간도 많이 소요된다고 판단

48) 今西龍, 『周留城考』 『百濟史 研究』 京城 近澤書店 刊行 1934, 338-339쪽.

49) 『日本書紀』 卷27, 天智天皇 2年(663) 春2月 乙酉朔 丙戌(2일) “…新羅人燒燔百濟南畔四州. 并取安德等要地.”

하고 전투의 수고나 희생을 줄이기 위해 火攻을 선택했던 것으로 보인다. 이에 김흠순의 군대는 순천에서 해안선을 따라 西進하면서 그 작전을 수행했던 것으로 판단된다. 火魔는 바람을 타고 번지면서 모든 것을 태웠고, 신라군의 존재 때문에 효과적인 진화는 어려웠다고 생각된다.

신라군의 방화에 관한 『日本書紀』의 기록(新羅人燒燔百濟南畔四州)은 663년 3월 九州에서 출발하여 百濟南畔 4州를 지나던 倭軍들이 잣더미가 되어 버린 현장에 도착해서 목격한 것이고, 그로 인해 그들이 겪어야 했던 어려움이 녹아든 것이라 생각된다. 화마가 지나간 그곳에서 倭軍은 무엇 하나 구하기 어려운 애로를 겪어야 했을 것이다.

그렇다고 해서 신라가 전남 해안의 모든 섬들을 잣더미로 만들었다고 보기는 힘들다. 그 가운데 항해에 꼭 필요한 물을 구할 수 있는 곳도 있었을 것이다.⁵⁰⁾

배가 한둘이면 그것은 가능한 설정이다. 그렇지만 2만 7천명을 태운 군 1000척의 배들이 한꺼번에 몰려오면 이야기가 완전히 달라진다. 개미떼와 같은 선단이 광활한 지역에 흩어져 있는 여러 섬에 배를 대고 물을 길러먹으려면 얼마나 시간이 지체되겠는가. 분산된 전력을 다시 모으는 데도 시간의 소요를 피할 수 없다. 육지에서 대량의 담수가 흘러내려오는 江으로 가는 것이 효과적이다.

(663)6月 前將軍 上毛野君稚子 等이 新羅의 沙鼻岐奴江에 있는 2城을 빼앗았다.”⁵¹⁾

663년 6월 倭軍이 沙鼻岐奴江에 위치한 신라의 2개성을 뺏아냈다. 3월 筑紫(후쿠오카)를 출발한 倭軍 선발대(前軍)가 한반도 남해안에서 가장

50) 『世祖實錄』 권9, 세조 3년(1457) 9월 27일 무자 조 “倭人으로서 孤草島(거문도)에서 고기 잡는 자는 반드시 蓮花島·欲知島 兩島에서 물을 길어 갑니다. ...”

『成宗實錄』 215권, 성종 19년(1488) 4월 5일 조 “무릇 고기를 낚는 倭船이 全羅道の 孤草島(거문도)에 來往할 때에는 반드시 (南海島의) 彌助項에 배를 대어 수일 있으면서 땀감을 베고 물을 길어 갑니다.”

51) 『日本書紀』 卷27 天智天皇 2年(663) 6월 “六月 前將軍上毛野君稚子等。取新羅沙鼻岐奴江二城。”

먼저 취한 군사행동이었다. 3개월 정도의 시간이 소요된 이 작전의 목적 가운데 하나는 식수 문제와 관련이 있을 것이다.

김흠순은 倭軍 2만 7천이 도착하기 직전에 중간기항지와 그 배후지들을 燒却시켰다. 그 결과 663년 3월에 九州를 출발한 倭艦隊는 8월 13일에 가서야 白村江에 도착했고,⁵²⁾ 그것도 총병력 2만 7천 가운데 中軍 1萬餘에 불과했다.⁵³⁾

663년 8월 13일 신라군이 周留城 앞에 陣을 쳤다. 같은 날 도착한 倭船團의 병력이 신라기병의 공격으로 상륙에 실패했고 周留城과 연결되지 못했다. 이것은 치명적인 결과를 낳았다. 8월 17일 신라군이 周留城을 포위했고, 白村江에 唐함대 174척이 들어와 江岸을 장악했다. 9월 7일 周留城이 함락되었다. 白村江에서 倭船 400척이 全燒된지 10여 일 만이었다.⁵⁴⁾

VI. 맺음말

김흠순은 아들을 황산벌 전장의 재물로 바치면서 백제멸망전쟁을 시작했고, 승리에 결정적인 역할을 했다. 668년 고구려멸망전쟁에서도 신라의 대표 사단인 大幢을 지휘했으며, 羅唐戰爭 직전에 唐에 파견되어 웅진도독부의 영역을 침탈한 책임을 추궁 받아 투옥되기도 했다.

본고에서는 백제멸망전쟁기에 김흠순의 활약을 집중적으로 조명하였다. 그의 작전 목적은 다음과 같다. 신라에서 熊津府城로 향하는 병참선을 확보하고, 倭國에서 周留城으로 향하는 병참선을 단절시킨다. 전자의 경우 660년 9월부터 662년 7월까지 단절되기를 여러 번 반복했고, 그때마다 신라가 희생을 감수해가면서 재개통을 했다. 후자의 경우 661년 3월 倭의 병력과 물자가 하역되는 古泗지역을 공략했지만 부흥군의 거

52) 심정보, 「白江에 대한 研究現況과 問題點」 『百濟文化』 32, 2003

53) 『日本書紀』卷27, 天智天皇 2年(663) 8월 13일 조와 28일 조.

54) 서영교, 「白江戰鬪와 新羅」 『歷史學報』 226, 2015

센 반격으로 大敗하여 다시 시도조차 하지 못했다.

결국 663년 2월에 가서야 작전을 바꾸었다. 김흠순은 倭의 선단이 筑紫에서 古泗(周留城)로 향할 때 경유해야하는 百濟南畔 4州(전남해안)의 중간기항지들과 그 주변을 全燒해 항로운영 자체에 타격을 주는 작전을 선택했다.

김흠순은 백제 남해안과 島嶼의 산성들을 하나씩 함락시키는 것은 희생이 따르고 시간도 걸린다고 판단했다. 봄바람이 부는 건조한 그 시기에 火攻이 효과적이었다. 김흠순의 군대는 沙平城(순천)에서 西進하면서 百濟南畔 4州(全南해안)의 광활한 도서지역을 조직적으로 초토화시켰다. 중간기항지와 그 배후지를 태워 倭艦隊의 행군을 지체시켰다.

그렇지만 신라가 다도해의 섬들까지 모두 잿더미로 만들었다고 보기는 힘들다. 그 가운데 물을 구할 수 있는 곳도 있었을 것이다. 하지만 2만 7천명을 태운 1000척의 배들이 한꺼번에 몰려들면 이야기가 완전히 달라진다. 그 많은 倭軍이 여러 섬에 흩어져 물을 길러먹으려면 얼마나 시간이 지체되었는가. 전력 분산을 피할 수 없다. 663년 6월 倭軍이 沙鼻岐奴江(섬진강)에 위치한 신라의 2개성을 뺏아냈다. 倭軍 선발대가 3개월이나 걸려 취한 첫 군사행동이었다. 육지에서 대량의 담수가 흘러내리는 江을 점령하는 것이 효과적이었던 것이다.

김흠순의 방해로 663년 3월에 九州를 출발한 倭軍은 8월 13일에 가서야 白村江에 도착했고, 倭艦隊와 周留城은 연결되지 못했다. 이는 치명적인 결과를 낳았다. 8월 17일 신라군이 周留城을 포위했고, 白村江口를 唐戰艦 174척이 장악했다. 결국 9월 7일에 周留城이 함락되었다. 倭船 400척이 白村江에서 全燒된지 10여일 만이었다. 백제멸망전쟁은 병참선을 두고 벌어진 싸움이 많은 비중을 차지했고, 무엇보다 김흠순의 百濟南畔 4州 방화가 白村江戰의 승패를 좌우했다고 생각한다.

※ 이 논문은 2020년 8월 9일에 투고 완료되어
2020년 8월 13일부터 9월 1일까지 심사위원이 심사하고,
2020년 9월 2일 편집위원회에서 게재 결정된 논문임.

참고문헌

- 『日本書紀』『資治通鑑』『三國史記』『高麗史』『朝鮮王朝實錄』『新增東國輿地勝覽』
今西龍, 「周留城考」『百濟史研究』 京城 近澤書店 刊行 1934.
전영래 『고사부리』 정읍군, 1980, 7쪽.
小島憲之 外 校註譯 『日本書紀』 3, 小學館, 1998.
이도학, 『백제장군 흑치상지 평전』 주류성, 1999.
崔仁善 「全南東部地域 百濟山城 研究」『文化史學』 18, 2000.
심정보, 「白江에 대한 研究現況과 問題點」『百濟文化』 32, 2003
金榮官, 「百濟復興運動 研究」 단국대 박사논문, 2003, 8.
노중국, 『백제부흥운동사』 일조각, 2003, 12.
공주대학교 백제문화연구원 편, 『백제부흥운동사연구』 서경, 2004.
서정석, 「百濟山城을 통해본 황산벌전투의 현장」『歷史教育』 91, 2004
金榮官, 「百濟復興運動의 成勢와 唐軍의 對應」『韓國古代史研究』 35, 2004.
金榮官, 『百濟復興運動 研究』 서경, 2005.
충남역사문화연구원 편, 『백제의 멸망과 부흥운동』 백제문화사대계 연구총서 2007.
김병남, 「정읍 고부의 지역적 형성과 변화 과정」, 『全北史學』 31, 2007.
양중국, 『의자왕과 백제부흥운동 엿보기』 서경, 2008.
김병남, 「백제 부흥 전쟁기 고사비성 전투의 의미」『정신문화연구』 35권 1호,
2012.
서영교, 「唐高宗 百濟撤兵 勅書의 背景」『東國史學』 57, 2014.
서영교, 「白江戰鬪와 新羅」『歷史學報』 226, 2015.
이재준, 『백제멸망과 부흥전쟁사』 경인, 2017.
박성현, 「신라의 가야 지역에 대한 축성-거창 거열산성을 중심으로-」『居列城』
거창군 학술대회 2019.

General Kim Heum-soon and War of the Extermination of Baekje

Seo, Young-kyo

It is believed that this was the direction of the Silla generals' operation during the Baekje War. It will secure a supply line from Silla to Xabi, a Chinese military base, and cut off the Japanese military line to the Juryo Castle.

In the former case, it was repeatedly cut off from September 660 to July 662, and every time Silla had to sacrifice and open its doors. In the latter case, Silla troops attacked Juryo Castle in March 661, where Japanese troops and supplies were unloaded, but they were defeated by Baekje's counterattack and could not even try again. Eventually, he went in February 663 and changed the direction of the operation.

Silla general Kim Heum-soon set fire to many intermediate stops via Japanese supply ships entering Baekje from Kyushu. Therefore, it difficult for Japanese ships to sail.

The Japanese fleet's voyage was delayed by Kim Heum-soon's Fire operation.

The Japanese troops, who left Kyushu in March 663, arrived at the Baekchon River on August 13 of the same year, and only 10,000 of the 27,000 Japanese troops deployed to the Korean Peninsula.

The Japanese fleet and Juryo Castle was not connected, this resulted in fatal consequences. On August 17, Silla troops surrounded the main fortress, and a Chinese fleet sank the Japanese fleet. On September 7, Silla troops occupied the mainstream castle. General Kim Heum-soon's Fire attack on the southern coast of the Korean Peninsula led to the victory of the Silla-Tang China Allied Forces.

keywords :

General Kim Heum-soon, Bangul, Hwangsanbul, Kosa, Juryo Castle, Keoyol Castle, southern coast of the Baekje, Baekchon River

